

## 제13강 자살시도자, 이렇게 바뀌었다 2

### 장양 사례

자살과 죽음 : 의식조사 (첫 시간)

1. 이전에 혹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또 자살시도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자살충동이나 자살시도한 일이 있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첫시간) 2007년 집안의 금전문제, 대인관계, 남자친구 이별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고, 그로 인한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 (마지막 시간) 이전에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고 학기 초에 밝히지 않았지만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2007년에 일산의 8차선 도로에 뛰어들었다. 휴학 중에 알바하다가 남친이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알고 손목을 칼로 그었는데 주방에서 친구가 발견했다. 학기 초에 적은 대로 남자친구와의 결별 후 그동안 그 친구를 만났던 7년 동안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그 외에도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과 만성무기력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듣기 전 이미 자살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수업을 들은 후 더욱 구체적으로 자살하면 왜 안되는지 알게 되었다.

2. 어려움에 봉착하면 마치 자살이 현실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듯이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살하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합니까?

- (첫시간) 모르겠다.  
- (마지막 시간)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자살은 자기 자신에게그리고 남은 사람에게도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3.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첫시간) 모르겠다.  
- (마지막 시간)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4.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 판단에 따라 자살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가?

- (첫시간) 동의하지 않는다.

-(마지막 시간) 주변에서 세 차례 자살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이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라고 측은해하고 용기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 5. 자살예방교육을 수강 신청한 동기는?

- 첫째로는 2시간이 사이버 수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는 수업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장양이 제출한 레포트 우리 죽음 문화의 현주소

우리의 죽음문화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을까? 가장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살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연예인들의 자살과 맞물려 따라하기 식의 연이은 자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죽음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삶과 죽음. 이 두 가지를 각각의 것으로 보고 즐겁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삶은 올바른 삶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 명예, 건강에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우리의 죽음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글을 보면 죽음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견해를 엿볼 수 있었다. 물론 올바른 죽음 교육을 받기 이전의 나라면 역시 그들과 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다. 죽음을 맞는 당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의료장비들로 억지로 생을 연명하고, 또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한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앗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말 그대로 '산 사람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안락사에 관한 문제가 아닌, 죽음을 맞는 본인이 미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파생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는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른 이의 죽음을 정하고 또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한 죽음 문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로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죽음은 무엇인가, 또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별개로, 또 죽는 것은 끝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은 끝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 한다. 즉 삶의 마지막에 오는 또 다른 시작점을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죽음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 준비는 죽음에 당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포나 불안감, 절망이라든가 분노 같은 잘못된 방법의 죽음 인식을 해소해주면서 동시에 죽음 자체를 기쁨으로, 또 희망으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자 도약점인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제대로 된 방법의 죽음 이해는 남아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 제대로 된 죽음준비를 통해 죽음을 맞는 사람들의 가족은 그의 죽음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죽음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똑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지만을 남기고 만다. 이러한 죽음준비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데서 혼자 준비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한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과 같은 올바른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올바른 죽음준비에 관한 책을 읽음으로 대비할 수도 있다.

만약 모든 국민이 필수적으로 죽음 교육을 받는다면 아마 지금처럼 자살이라는 무책임하고 무의미하고 잘못된 죽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죽음 준비로 인해 현재 만연한 생명경시풍조는 사라질 것이며 그로 인해 낙태 등의 생명경시풍조로 인한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준비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여 올바른 죽음을 맞는 것 이외에도 많은 효과를 주는 꼭 필요한 삶의 과정 중의 하나이다.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삶 자체를 고달프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오래 살았건, 혹은 일찍 죽음을 맞았건 간에 죽음에 순간에는 모두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며, 또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잘 살은 삶이었는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웰다잉 교육, 죽음준비교육,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이 국내에, 또 세계에 필수 교육 코스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진정으로 잘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자살, 그 잘못된 판단

어제 레포트를 작성하다가 문득 켜놓은 TV에서 도박중독자들의 치료에 관한 내용을 방송해 주는 것을 보았다. 도박중독자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 갔다가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빈도수가 잦아지고, 자꾸 판돈이 커지고, 잃는 돈이 많아 지지만 한 번만 더 하면 잃은 돈 보다 더 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결국은 가정경제를 파괴하고 가족들의 신뢰를 잃는다. 대부분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느 한부분이라도 잃게 될 때이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스스로 자포자기 하고 자해를 하거나 심하면 자살시도를 한다고 했다.

도박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보였고 세상을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으며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고 싶었고 실제로 시도도 했다고 말했다. **도박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도박중독자들은 도박을 끊는 것보다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그들이 도박중독으로 인해 잃은 신뢰를 되찾는 것이며 도박중독자인 자기 스스로를 이겨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도박중독자들에게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자살 예방에 관한 강의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살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살해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죽음과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은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 되고 주변사람들은 당사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되지만 자살은 그렇지 않다.

임사체험자들과 자살미수자들의 경험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그렇다. 임사체험자들은 하나 같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보았고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없고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살미수자들은 살기 전보다 더욱 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는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죽은 이후에 자살한 것과 찾아오는 죽음을 맞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살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왜 나만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해 자살을 택하기도 하며 어려움을 참지 못해 자살을 택하고는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또 경제 불황이나 사회적인 불평등,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급기야는 ‘왜 사람들은 나만 못살게 구는가’, ‘사회사 나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정당화하기도 하며 자살을 통해 ‘지긋지긋한 이 세상과 작별한다’고 삶과의 결별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자기 생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살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이 모든 생각은 그릇된 생각임을 알 수 있었다.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자살은 나약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리는 가장 그릇되고 되돌

릴 수 없는 선택이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희망을 없애 버린다. 자신보다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고 못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희망마저 떨쳐버린다. 그리고는 ‘나 아무런 희망도 없고 힘들어서 못살겠으니 죽겠다’는 생각으로 자살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겨진 사람들을 눈꼽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자살자들의 유서에 보면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에게 미안하다고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는 미안하다고 하고 죽는 것보다 미안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가 자살한 이후, 남은 사람들은 죄책감과 공허함 등에 시달린다.

내 친구의 남자친구는 올해 초 오랫동안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렸던 배다른 누나가 자살한 이후 성격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었으며 언제나 내 친구에게 자신의 희망은 너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했다. 배다른 누나지만 자신에게 가족은 병으로 입원중인 친모와 그 누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친구였고, 그 누나가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녀의 자살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내 친구의 남자친구는 ‘누나가 요즘 들어 밝아 보여서 우울증도 많이 나아진 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엠티를 가던 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엠티 끝나고 시킬 일이 있으니 친구와 같이 오라’던 누나 말을 흘려들은 것을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아끼던 사람의 자살은 남은 자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주고, 그들에게서 삶의 의미를 빼앗기도 한다. 이것만 보아도 자살은 그 자체로도 그 이후에도 부정적인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남겨진 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자살은 되돌릴 수 없다. 그것이 미수로 끝나고 목숨을 건지면 다행이지만 성공한다면 자살미수자의 증언처럼 살아 있을 때 보다 더욱 심한 고통에 시달려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님을 알고 또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시간에 자신에게 남겨진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찾아오는 자신의 죽음 또한 후회가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포트마다 강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사는 법, 나아가 잘 죽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 같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늘려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할 것이다.

## 내 속의 또 다른 누군가

김영우 박사의 『영혼의 최면치료』는 지난 학기에 자살예방교육을 들을 때 한번 읽은 적이

있었다. 그 당시 한번 읽었을 뿐인데도 느끼는 바가 많았기에 다른 책을 읽는 대신 다시 한번 이 책을 읽는 것을 선택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신기하고 기이한 이야기들에 매료되어 술술 읽어 나갔었다. 하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미 수업시간에 동영상 등으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인지 다른 느낌으로 읽게 되었다. 다 읽고 난 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고질적인 우울증이 있는 내 자신이 저런 심리 치료를 받아 봤으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우울증이 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살 예방교육 수업을 들으면서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에 생각하던 우울증은 가만 있어도 눈물이 떨어지고 이유도 없이 슬프고 의욕이 없고 하는,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춘기 같은 것이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우울증이라고 보지만 우울증이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이다. 나는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무기력증과 동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그 증세는 호전되고 있다.

책에서 본 것과 같이 심리치료를 포함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학기 수업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한 치료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겨내려고 노력중이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앞서서도 말했듯 나는 만성 무기력증을 동반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던지 의욕이 없고 그로인한 피해도 많이 보는 편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러한 무기력증을 앓고 있진 않았다.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나아서 일처리를 하길 좋아했고 성격상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됐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처리의 뒷마무리조차 꼼꼼하지 못하고 항상 계획과는 다르게 대충 마무리 짓거나 엉망이 되곤 한다. 이러한 나의 일처리 방식은 나의 우울증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서로를 채찍질해서 작은 이유로도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꼈던 나는 지금은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겨내고 있다.

첫째로 무슨 일이든 참가하여 혼자 아무것도 안하는 시간을 줄여가고 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다. 이를 몰랐던 이전에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학과일 등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럼으로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점차 더 많아지고 더 폐쇄적인 생활을 했었다. 하지만 열심히 행사에 참여한 지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예전보다 몸도 덜 피곤하고 덜 아프다. 이는 내 마음의 병이 호전됐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 나에게 시련이라고 생각되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의연한 자세로 그것을 바라본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시련은 허탈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무 일도 아니고, 그저 ‘더 노력해야 할 일’정도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있는 일은 무기력증을 이기는 일이다. 그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최대한 미루지 말고 약속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어떤 일처리의 방법이 잘못되거나 일처리가 미루어지면 핑계를 많이 댔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상의를 못 듣고 넘어갔을 경우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취방에 인터넷이 안 되는 탓을 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것은 너무 우스운

핑계이기 때문에 핑계거기를 생각하기 보다는 일처리를 가능케 하는 수많은 방법, 즉 사이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내가 이렇게 나의 우울증에 고나한 이야기와 이겨낸 방법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영혼의 최면치료』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동반한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책 속의 사람들이 증언했던 검은 존재, 혹은 다른 영혼은 김영우 박사 자신이 이야기 했듯 실제로 그런 존재 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핑계거리였다고는 생각된다.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은 ‘그 존재’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통해 ‘그 존재’가 사라지고 난후에는 더 이상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앓을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존재’는 환자의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의 핑계거리이었던 것이다.

나는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영혼의 최면치료』를 읽으면서 나의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어떠한 핑계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책에 관한 레포트의 긴 부분을 나의 경험을 써 내려가게 되었다. 물론 내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러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영혼의 최면치료』는 그 자체로도 나에게 치료제였으며 나에게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동력이 되었다.

## 잘못된 선택, 다행스러운 실패

이전 학기 자살예방교육이라는 과목을 들을 당시 학기 초에는 나의 자살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살을 세 번씩이나 시도했던 사람으로 자살예방교육이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학기 말에는 내 스스로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자살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살이라는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까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는 나의 생각은 180도 변하게 되었다. 지금 듣고 있는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는 수업은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었던 지난 학기 수업의 연장선을 나에게 죽음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필수적인 것인지 알려주었다.

자살을 시도했을 당시 나는 내 스스로가 자살로 인해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나 현실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살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자살시도는 미수에 그치고 말았고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

도 없다는 것에 또 한 번 고통을 느꼈다.

어쩌면 자살을 시도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복수심이라던가, 절망감, 그리고 눈앞에 당면한 고통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한다고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도 나는 주변에서 3번의 자살을 보았고 그 사람들 또한 자살을 시도했던 그 당시의 나처럼 복수심 때문에, 혹은 우울증이 안겨준 절망감 때문에, 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그런 고통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이 자살 이후 얼마나 고통 받을 지 생각한다면 절로 한숨이 쉬어질 정도로 안타깝다.

다행히도 나는 자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우연한 기회에 자살예방 교육 수업이 개설됨을 알았고, 호기심에 수강을 하게 되었다. 만약 그 수업을 듣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도 조금이라도 힘들다면 자살을 생각하고 또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하지만 자살에 관해 무지했기 때문에 시도했던 일이라 그것이 부끄럽다거나 숨겨야 했던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변하는 것으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나 혹은 자살미수자들에게 웰다잉 교육에 관한 것을 알린다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의 세 번의 자살시도를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자살과 죽음에 대한 오해들이 나와 같은 계기로 인해 해소되어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일 년 전 나의 다행스러운 실패는 이전까지의 소극적으로 삶을 살았던 나에게 진정한 웰빙과 웰다잉의 의미를 일깨워 줌으로서 내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었다.